

본적인 마음가짐에 Downplay(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것)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을 뿐, 그렇다고 해서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순 없겠지요.

●●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.

실제로 CEO가 되어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, 채용할 수 있는 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실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아주 많아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. 이 젊은이들이 지금 당장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간혹 스스로의 가치를 직장에 두

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세대부터 마음가짐을 달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굳이 대기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. 자신이 갖고 있는 특징점을 살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

사람들은 철학이나 역사학 등의 인문학에서 그 해답을 찾기도 하는데, 이는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생각과 발자취, 삶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젊은이들이 시야를 한국이라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넓히고, 기성세대가 말하는 '좋은 직장' 대신 '나에게 맞는 길'을 마치 숨을 쉬듯이 천천히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.

• 진행 | 손정배 (홍보팀장) • 정리 및 사진 | 최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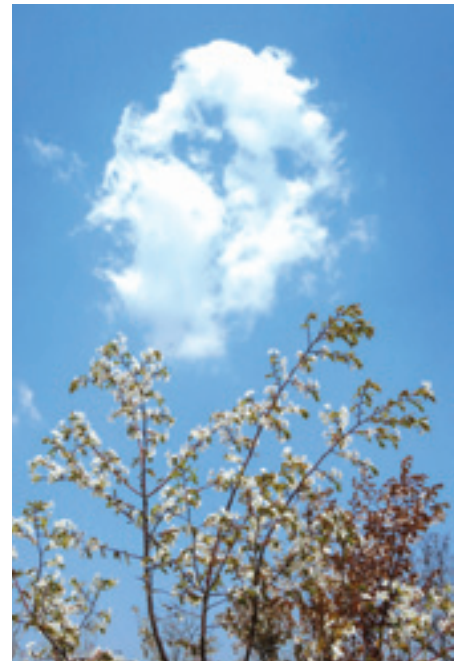
포토갤러리



벚꽃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



봄날을 맞은 여유로운 주말의 산책로



따스한 봄, 푸른 하늘 그리고 흰 구름

류 석 창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